한국무역협회 미주본부

www.kita.net

KITA

워싱턴통상정보

2025.03.05

트럼프發 관세전쟁 확대 양상 및 트럼프 관세정책의 부정적 영향

한국무역협회 미주본부 워싱턴지부

※ 이하 시간 표기는 미국 현지시간(EST)

Ⅰ 캐나다·멕시코·중국의 對美 보복관세로 트럼프發 관세전쟁 확산

Inside US Trade 및 트럼프 소셜미디어

□ 캐나다, 멕시코, 중국은 미국의 관세 조치에 맞서 對美 보복관세 도입을 검토 또는 시행하고 있음

○ **(미국)** 3/3(월)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 멕시코가 펜타닐 유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양국가에 대한 관세 25% 부과를 발표(3/4 부 발효)

○ **(캐나다)** 3/4(화)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1,550억 달러 규모의 미국産에 대한 보복관세 조치를 발표

- 300억 달러 규모의 미국産 제품에 관세 25% 즉시 발효, 이후 21일 이내 1,250억 달러 규모 추가 품목*에 동일한 관세율을 적용할 계획 * 미국産 자동차, 알루미늄, 항공우주 품목 등 포함 예정
- 미국의 對캐나다 관세 조치가 철회되지 않는 이상 캐나다의 對美 보복관세는 지속된다고 발언
- 더불어 Doug Ford 캐나다 온타리오州 주지사는 니켈* 對美 수출 중단, 정부조달 계약 파기 또는 미국 기업 배제 등을 비관세 보복 조치로 거론

*캐나다는 전체 니켈 생산량의 약 50%를 美 국방부 및 기업에 수출 중

○ **(멕시코)** 쉐인바움 멕시코 대통령 역시 대미 보복관세 조치를 검토중(3/9 발표 예상)

- 멕시코는 `24년 10월~ `25년 1월 사이 美 남부 국경에서의 펜타닐 적발량이 50% 감소했다고 주장
- 미국과의 협력(cooperation)과 조율(coordination)은 가능하지만, 종속(subordination) 또는 간섭(interventionism)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

○ **(중국)** 미국産 △닭고기, 밀, 옥수수, 면화에 관세 15%, △수수, 대두, 돼지고기, 소고기, 유제품에는 관세 10% 부과 계획을 발표

□ 상기 국가별 보복시사 관련 3/4(화) 트럼프는 관세를 피하려면 생산기지를 미국으로 이전해야 한다며, 캐나다의 보복관세에 대해 동일한 수준의 상호 관세로 재대응할 것이라고 경고

"IF COMPANIES MOVE TO THE UNITED STATES, THERE ARE NO TARIFFS!!!"
(2025년 3월 4일 트럼프 대통령 *Truth Social* SNS 발언)

"Please explain to Governor Trudeau, of Canada, that when he puts on a Retaliatory Tariff on the U.S., our Reciprocal Tariff will immediately increase by a like amount!"
(2025년 3월 4일 트럼프 대통령 *Truth Social* SNS 발언)

Ⅱ 트럼프 관세 정책으로 인한 소비재 가격 상승 및 재정적 악영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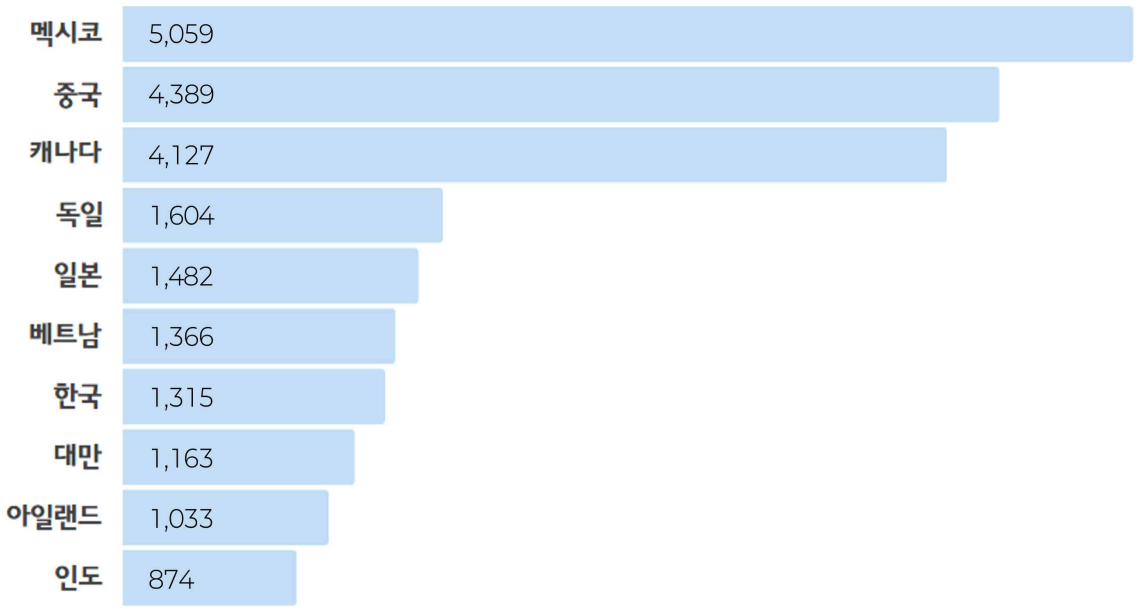
CNBC 보도 정리 및 FRED 데이터 분석

□ **미국의 주요 수입국은 멕시코, 중국, 캐나다로, 핵심 수입품목(기계류·전자기기·자동차 등)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소비재 가격 상승이 전망됨**

○ 2024년 미국의 전체 상품수입 규모는 2조 9,000억 달러로 최대 수입 대상국은 멕시코($5,059억), 중국($4,389억), 캐나다($4,127억) 순으로 나타남

< 미국의 10대 상품수입국 순위 >

단위 : 억 달러



출처 : US Census Burea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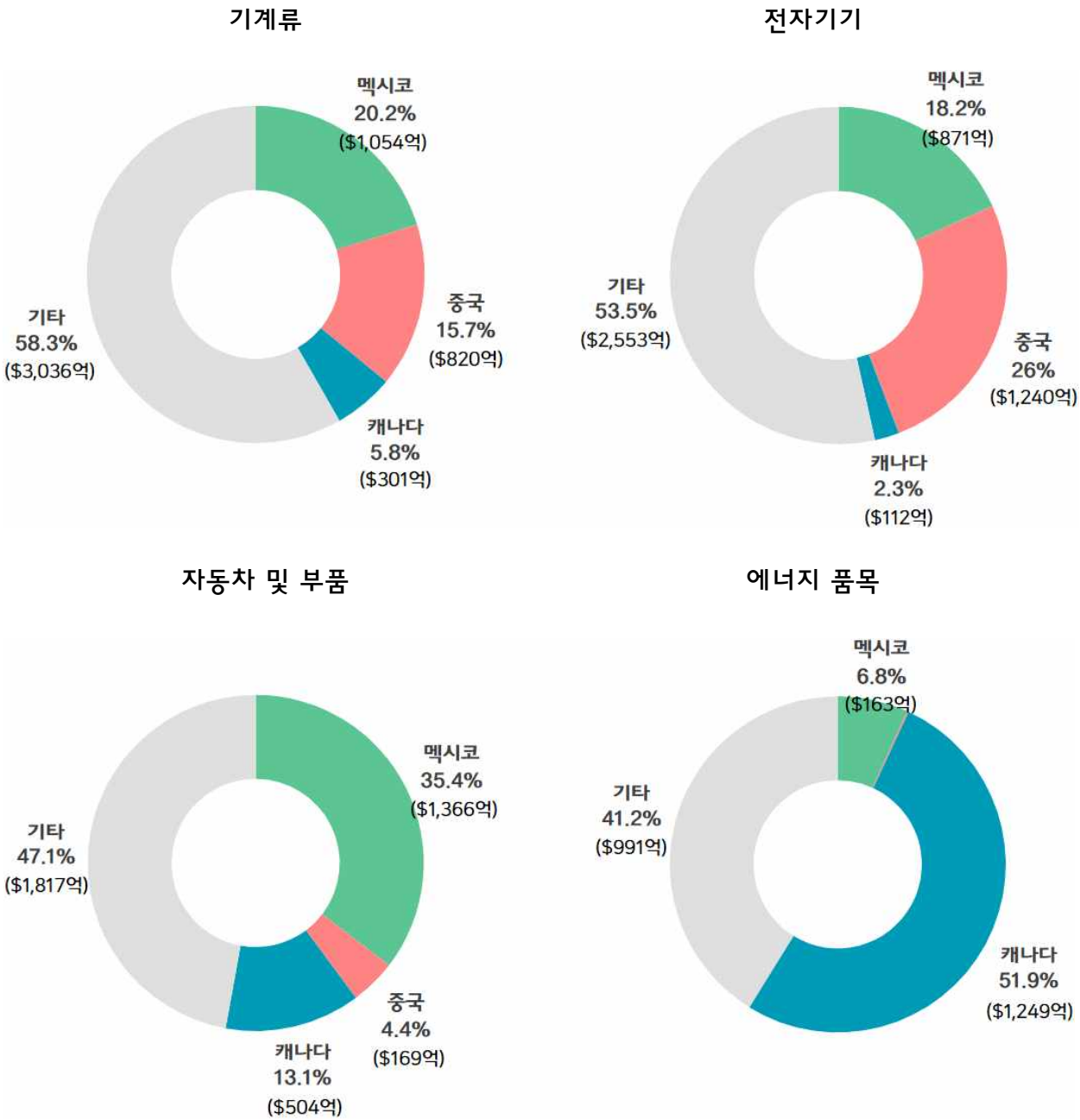
○ **미국의 주요 수입 품목은 기계류, 전자기기, 자동차이며, 캐나다, 중국, 멕시코가 이들 수입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따른 소비재 가격 상승이 예상됨**

- **(기계류)** 2024년 미국의 총수입액($5,211억) 중 멕시코가 20.2%($1,054억)로 최대 비중을 차지했으며, 중국과 캐나다를 포함한 3개국의 합산 비중은 41.7%에 이름
- **(전자기기)** 전체 수입액($4,776억) 중 중국이 26.0%($1,240억)로 최대 수입국이며, 멕시코와 캐나다를 포함한 3개국의 합산 비중은 46.5%

- **(자동차 및 부품)** 전체 수입액($3,856억) 중 멕시코가 35.5%($1,366억)로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으며, 멕시코·중국·캐나다의 합산 비중은 52.9%

- **(에너지 제품)** 전체 수입액($2,407억) 중 중국 비중은 0.2%($4억)에 불과하나, 멕시코($163억)와 캐나다($1,249억)의 합산 비중이 58.8%에 달함

< 미국의 수입 품목별 국가 비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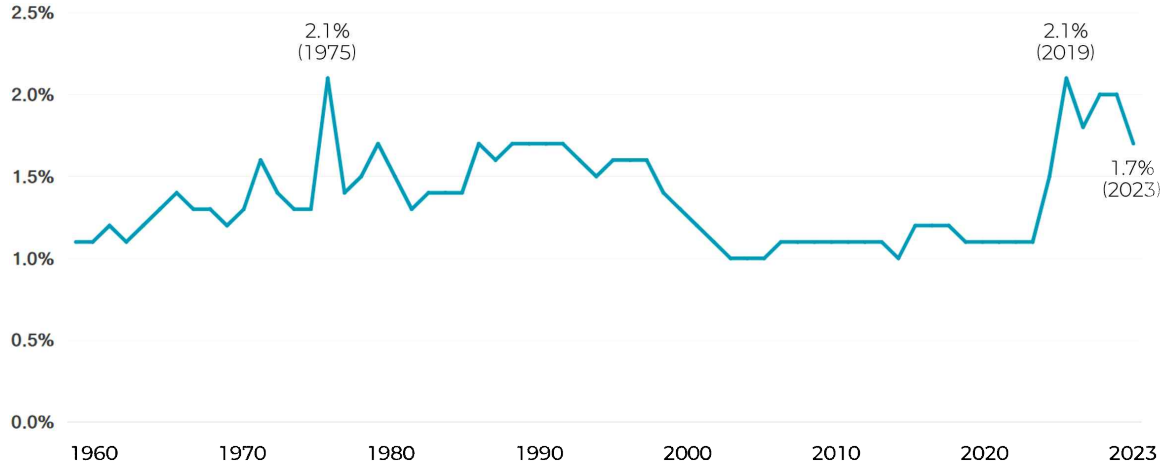
출처 : US Census Bureau

○ 트럼프는 관세 인상으로 인한 가계 부담을 소득세 폐지를 통해 상쇄하려 하지만, 개인 소득세가 연방 세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소득세 폐지는 정부 재정악화를 가속화 할 전망

- 2024년 연방정부 전체 세수($4.9조)에서 개인 소득세($2.7조)가 차지하는 비중은 55.1% 기록

(참고) 반면, 2023년 연방 정부 세수에서 관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7%에 불과하여 지난 60년 동안 관세 수입이 연방 세수에서 2%를 초과한 사례는 단 두 차례('75년 및 '19년)뿐인 것으로 나타남

< 연방정부 세수에서의 관세 수입 비중 추이 >



출처 : US Bureau of Economic Analysis

참고 자료

3.4(화) Inside US Trade, China retaliates with ag tariffs, export controls, company blacklists

3.4(화) Inside US Trade, Canada to impose 25 percent tariffs on $150 billion in U.S. goods

3.4(화) NBC News, Understanding Trump's tariffs, in five charts

3.4(화) FRED, Federal government current tax receipts: Taxes on production and imports: Customs duties/Federal Government Current Receipts